

그리스도인 19.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된 사람이다.

Christian 19. A Christian is a justified person.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라면 경건치 아니한 자로서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시 1:6)

의롭게 한다는 말은 법률적 용어이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칭의(justification)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가져다가 그분의 은혜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사용하신다. '그들은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신다.

1. 칭의의 반대는 정죄이다. 정죄는 '유죄'(condemnation), 혹은 가톨릭 성경에 번역되기를 '단죄'라 했다. 이것은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죄받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정죄한다. 도대체 누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율법 앞에 서면 모두 유죄가 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당하게 하셨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당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롬 3:24)

2. 칭의는 비록 죄가 있었으나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죄들을 용서받아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³⁴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 8:33-34)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심판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일도 없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은 뒤에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 이래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죄책을 제거해준다. 죄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값, 심판을 없애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롬 8:1)

비록 빛이 있었지만 대신 빛을 갚아준 사람 때문에 채무이행의 의무가 없어지게 된 것처럼, 죄는 있었지만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때문에 더는 나의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하거나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칭의이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칭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곧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전가되리라. ²⁵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 4:24-25)

3. 칭의,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얻지 못한다. 다음의 성경기록들을 보자.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갈 2:16)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롬 3:20)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롬 3:28)

칭의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⁹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성격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근거해서,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하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⁹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8-9)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아직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가? 그러면 평생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노력을 포기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죄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